기존 문화자원 재생을 통한 장소성 콘텐츠 개발 연구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Place-Based Contents Reusing Existing Cultural Resources

이 민 석, 전 영 록, 김 준 한*, 김 현 기**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문화관광학과, 안동대학교 유럽·문화관광학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안동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Minseok Lee, Young rok Jeon, Joonhan Kim*, Hyen ki Kim**
Andong National Univ, Andong National Univ., Gyeongsangbuk-do Culture & Content Agency*, Andong National Univ**

요약

산수실경 뮤지컬 왕의 나라는 지역문화콘텐츠 경쟁력과 가능성 확보를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사업이다. 기존 문화자원 재생(Regeneration)을 통한 장소성 콘텐츠 제작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문화산업화를 위하여 지역모델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있는 이야기, 있는 사람으로 제작된 왕의 나라 공연결과는 약 300여명의 문화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48,000명의 관람객 등 지역문화콘텐츠의 가능성을 엿 본 작품이다. 향후 역사, 인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산수실경 뮤지컬 왕의 나라는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경상북도 대표 문화콘텐츠 아이콘이 되고자 한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1]. 그림 1.은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내 한류(韓流) 정책이며 드라마(1세대), 음악(2세대), 전통문화(3세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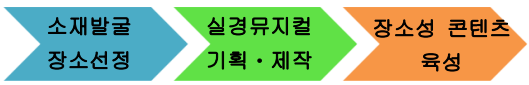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신 한류 3.0시대에 부합되는 전통문화자원인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하여 휴면화된 인프라 재생(Regeneration)을 통하여 장소성 콘텐츠 산수실경 뮤지컬「왕의 나라」를 제작하였다.

▶▶ 그림 1. 국내 한류(韓流) 정책 흐름도

2. 연구구성 및 흐름

장소성 콘텐츠(Place-based Contents)는 공간적인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실경 공연콘텐츠이며, 서울·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 고급화된 지역문화콘텐츠이다.

연구구성 및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산수실경 뮤지컬「왕의 나라」는 2차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몽진(蒙塵)을 온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피란 70일 간의 있었던 안어대동(安於大東)의 정신적 배경과 역사 가운데 흐르는 사랑과 지역의 서사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휴면화된 인프라 재생을 통한 장소선정 그리고 지역민을 활용한 실경 뮤지컬제작이다[2].



▶▶ 그림 2. 연구구성 및 흐름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왕의 나라」는 전통성(傳統性), 지역성(地域性), 자연성(自然性)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문화 부활의 전초적인 스토리텔링 Think tank 역할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상북도는 장소성 콘텐츠(Place-based contents) 중심지역으로 육성한다면 차별화된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반드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3).

▶▶ 그림 3. 장소성 콘텐츠 왕의 나라 제작구성요소

Ⅱ. 장소성 콘텐츠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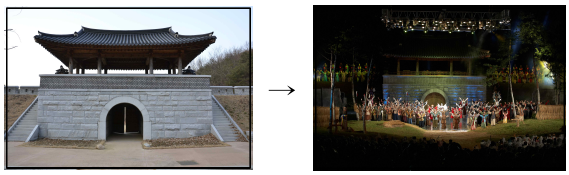
1. 공간 스토리텔링

공간 스토리텔링은 '장소의 창조' 범주화에 적용된다[3].

산수실경 뮤지컬 「왕의 나라」는 단순한 지리학적 개념이 아닌 유휴화된 인프라 재생(Regeneration)을 통한 그린 콘텐츠(Green Contents) 제작에 역점을 두었다.

현재 국내 테마파크 및 관광지는 무분별한 촬영장 조성에 따라 운영문제와 촬영종료 후 관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 4.는 '장소의 창조'로 태어난 뮤지컬 「왕의 나라」의 제작사례로 기존 인프라 재생을 통하여 공간 스토리텔링화 시킨다면 지역모델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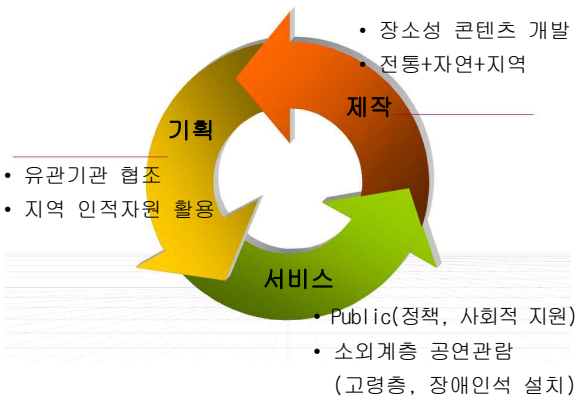


(a) 휴면시설 (b) 공연장

▶▶ 그림 4. 휴면시설 공연장 공간 스토리텔링화

2. 제작과정

산수실경 뮤지컬 「왕의 나라」는 지역의, 지역을 위한, 지역에 의한 소재발굴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지역의 감성 중심 문화를 자극하는 홍보와 마케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 문화 복지를 위한 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유도하였다(그림 5).



▶▶ 그림 5. 뮤지컬 왕의 나라 제작과정

3. 공연결과

지역 모델사업으로 진행된 산수실경 뮤지컬 「왕의 나라」는 전국 초유로 단위 공연산업을 통해 각 분야의 핵심인재 300여명을 양성하였다. 또한 투입예산 대비 공연제작비는 약 90% 이상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떠나는 「왕의 나라」 전통체험여행과 연계하여 총 4만 8천여명이 공연을 관람하였다(표 1).

표 1. 산수실경 뮤지컬 왕의나라 관람객 집계(2011)

구 분	총인원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관람객	2만 8천명	3천명	5천명	6천명	7천명	7천명
부대 행사	2만명	3천명	3천명	4천명	5천명	5천명

Ⅲ. 결론

지역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문화콘텐츠는 서울·수도권 기획사가 제작하여 지역으로 유통 및 배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산수실경 뮤지컬 「왕의 나라」는 기획, 소재 발굴, 장소 선정, 극본, 음악, 인력구성, 배우교육 및 연습, 자문회의, 현장세미나, 홍보, 공연제작업체 선정 등의 과정이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2012년 산수실경 뮤지컬 「왕의 나라」는 경북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 하였으며, 질적인 수준과 유휴화된 공간으로 극대화시켜 명품 장소성 콘텐츠로 육성할 예정이다.

▮ 사 사 ▮

본 연구는 경상북도, 안동시 보조금 사업인 "2011 문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참 고 문 헌 ▮

[1] 변미영, 김영수, "2011년 콘텐츠산업동향과 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제8권, 제8호, pp.02-10, 2011.

[2] (재)안동영상미디어센터, "문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사업", (재)안동영상미디어센터, AMC-콘텐츠-2011-01, pp.26-27, 2011.

[3] 안승범, 최혜실,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테마파크 기획 연구", pp. 281-282, 인문콘텐츠 제17호, 2010.